



나에게 꼭 맞는
입학전형은?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별
실전 분석**

위촉사정관이 알려주는
학종 준비 노하우

좋은 자기소개서의 7가지 특징

알고보면 더 매력적인
서울시립대 학과 3


사진으로 떠나는
서울시립대 건축기행



청춘, 그 아름답게 흐드러지는.

눈 녹듯 깨어나라고
씩 나뭇 돌아나라고
꽃 피듯 피어나라고
그래서 청춘, 그대.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계절을 시작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햇살이 나무에게 하듯.

줄기 뻗어 열매 맺듯
세상을 향해 무럭무럭
자라날 젊음에게.

서울시립대학교가
미래까지 환히 밝힐
찬란한 배움을 전합니다.

CONTENTS

UNIVERSITY OF SEOUL MAGAZINE
VOL.10 / 2019



02

GUIDE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합격의 길!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별 실전 분석

10

ADVICE

위촉사정관에게 직접 듣는다!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학종 준비 노하우

16

INTERVIEW

너의 인재상이 보여, 스포츠과학과

18

RESUME

좋은 자기소개서의 7가지 특징

20

TALK

면접, 진실 혹은 거짓

22

CHECK

논술 채점, 어떻게 이뤄질까?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이것만은 꼭!

24

MAJOR

알고 보면 더 매력적인 서울시립대 학과 3
교통공학과 / 공간정보공학과 / 중국어문화학과

30

GALLERY

사진으로 떠나는 서울시립대 건축기행

36

COVER STAR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보세요”

38

PEOPLE

정해진 길은 없다

44

INFORMATION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안내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최다
논술 모집인원 줄고 정시 늘어나

52

NOTICE

입학이 궁금해?
우리가 알려줄게!
서울시립대 입학 홍보대사 ‘스카우터’

54

CALENDAR

한눈에 보는 UOS 연간 프로그램

56

TOON

서울시립대생의 친구
시냥이를 소개합니다

2020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합격의 길!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별 실전 분석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계획은 2019학년도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수시 62.9%, 정시 37.1%의 비율로 선발한다.

2020학년도에도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가지 입학전형별 특징부터, 위촉사정관이 직접 알려주는 학종 준비 노하우, 논술 채점 포인트까지

2020학년도 입학 준비를 위한 꿀팁을 모았다.



나에게 맞는 입학전형은? 서울시립대 입학전형별 특징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논술전형의 수시, 수능 일반전형의 정시까지 총 4가지 유형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선배들의 생생한 후기에서 합격의 길을 찾자.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계획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사추천서가 폐지되었다는 것 정도가 특이 사항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184명을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논술전형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9명이 축소된 14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합 8 이내여야 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 논술전형
- 정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의 눈높이에 맞춰 노력해온 인재임을 부각

수시모집의 대세로 자리 잡은 학생부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입학에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각각의 학부·과별 인재상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학종의 기본 모토는 충실한 학교생활은 물론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학부·과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다. 서울시립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학부·과별 인재상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신이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이라는 점을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부각시켜보자.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알보면 낭패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그러나 이 전형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다. 교과성적이 우수해도 입학에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매년 많은 수험생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의 아픔을 겪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논술전형

기출문제 속에 길이 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논술전형은 교과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교과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뿐이지 아예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학종 지원이 어렵거나 교과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인 것만은 분명하다. 서울시립대 논술전형은 인문계열의 경우 인문 및 사회 분야의 제시문과 논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지문을 바탕으로 통합 교과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 계열의 경우 수리 관련 제시문으로만 출제되고 과학영역은 출제되지 않는다. 평소 기출문제를 통해 꾸준히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정시전형

수시의 빈틈, 끝까지 노려라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시전형 모집인원은 635명. 이 중 수능 위주 전형이 533명, 실기 위주 전형이 102명이다. 2019학년도 대비 소폭 늘어난 숫자다. 그러나 여전히 입학의 중심축은 수시전형. 다만 많은 수험생이 수시전형에 몰릴 때 오히려 정시를 기회로 삼는다면 합격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또 수시모집에서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할 시 정시모집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최종 모집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학부·과에 지원할 때 합격자 평균과 추가 합격인원을 신중히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눈에 보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	특징	이런 학생에게 딱!
학생부교과전형	O	X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성적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교과성적이 매우 우수하면서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
논술전형	X	X	1단계 논술 100% 2단계 논술 60% 학생부(교과)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학생 • 자연: 수학 문제 풀이에 강세가 있는 학생
학생부종합전형	X	O	1단계 서류 100% (학생부, 자소서) 2단계 서류 50%, 면접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교과, 비교과 등 전체)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
정시전형	X	X	수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성적에 자신있는 학생

©gettyimagesbank

학생부종합전형 김혁

“3년간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준비해온 친구들에게 추천”

Q | 고등학생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A | 먼저 교내 활동으로는 독서록 작성 대회나, R&E 활동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교과별 수업시간에 했던 발표 대회나 프로젝트 대회도 나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영어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수업은 자유 주제로 하되 발표를 영어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이 있던 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찾아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교외 활동 중에서는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단순히 시간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활동 내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한 두 번의 경험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요양원 봉사, 1년간 장애인 학교 봉사, 2년 동안 다문화가정 상담제 봉사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Q | 학생부종합전형의 1차 관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팁이 있다면?

A | 저는 고교 시절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 중의 하나가 저의 학교생활을 문서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만약 교내 UCC 대회에 참가했다면,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성취감, 혹은 아쉬운 점 등등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렇게 저장된 일상은 나의 기록이자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백업된 서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처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막막했던 것과 달리 솔직하고 정확한 기록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지원하려는 학교의 인재상에 맞게 생활해왔는가에 대한 고민도 자기소개서 안에 포함돼 있어야 해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경우에는 실천적인 모습과 함께 리더십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학교 활동 중 제가 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좀 더 부각해서 작성했습니다.

Q |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은 어땠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모든 면접이 그렇겠지만,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을 면접관에게 보이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면접 시 질문은 철저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예상 질문을 뽑아 가상으로 질의응답을 미리 연습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해당 활동에 대한 최근 뉴스나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은 약 15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일방적인 묻고 답하기의 시간이 아니라 면접관과 내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는 것이 긴장을 푸는 팁이 되겠네요.

Q |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나 활동,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 담임선생님과 친구들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은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면접 동영상 촬영까지 해주시면서 저도 모르는 나쁜 습관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주셨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모의 면접을 치르는 등 실천 대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Q | 어떤 수험생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A | 3년 동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성실한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교 3년간 수능 공부에만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경험하고 대학에 진학해 보다 심도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친구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이 꿈을 이뤄줄 겁니다.

학생부교과전형 강민선

“합격의 나침반,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Q |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이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요.

A | 흔히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문과였지만 과학, 수학을 좋아하고 그 밖의 한자, 체육 등과 같은 다른 과목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교과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각 과목마다 배우는 의미와 그 매력이 다르니까 새로운 배움의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과목 자체를 싫어하게 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더라고요.

Q | 교과성적 관리에서 이걸 진짜 진짜 중요해! 하는 게 있다면요?

A | 어떤 과목이라도 무조건 암기보다는 이해가 우선입니다. 국어는 작품에서 특정 단어의 의미나 흐름이 이어지는 논리성을 바탕으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개념서를 선택해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영어는 문장 구조 파악과 단어 싸움이지만 결국 언어는 흐름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몇몇 모르는 단어도 전체적인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지문을 분석하고 외우면서 공부하는 편이었어요. 성적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컨디션 관리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부터 찾아야 해요. 잠을 줄여가며 오래 앉아 있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죠. 건강을 잃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무리해서 밤을 새지 않도록 하고, 모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성급히 정답을 맞춰보지 않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의 한 방법입니다.

Q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어 정시도 놓을 수 없는데, 교과와 수능 공부의 시간 배분은 어떻게 했나요?

A | 교과와 수능 시험은 지문의 암기, 문제 유형 등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념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공부하며 성적 관리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와 연결이 됩니다. 저는 정기고사 시험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시험에 대비하고 이후에는 교과와



수능 공부를 연계하여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Q |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나 활동, 자료가 있다면요?

A | 모의고사와 기출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과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대충 치르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해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볼 수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공부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바로 모의고사니까요.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고 틀린 문제는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 학생부교과전형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나만의 팁을 소개해주세요.

A | 하향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친구들의 합격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시가 안 되면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했고 그런 굳은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길이 맞을까 불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전형을 선택했어야 했나 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목표는 하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논술전형 조약창

“논술전형 준비는 빠르게, 선택은 신중히”

Q | 서울시립대 논술의 대략적인 특징이 궁금해요.

A | 제가 준비한 인문계열 논술의 경우 제한 시간은 120분, 문항은 3개입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 드물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논술전형이라 정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 있죠. 서울시립대 인문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 유형이 확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1번은 요약 및 비교 분석 지문, 2번은 도표/그래프 분석 지문, 3번은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모든 제시문을 활용해 쓰는 장문 논술로 항상 같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타 대학 논술에 비해 제시문 수와 내용이 많아 해석이 오래 걸리고, 쓸 내용도 많아 120분 내에 내용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힘들어요. 때문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논술고사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Q | 논술전형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논술전형을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고3 초반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을 뺏기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논술 기본기를 기르는 데에는 일주일에 6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다양한 대학교의 모의 논술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학교의 논술 유형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도 분석할 수 있고요. 논술고사의 지문 분석과 수능 국어



지문 해석에는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능 국어 실력의 향상도 노려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대학교의 논술을 준비할지 결정한 후, 해당 대학의 모의논술, 역대 지문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거치면 합격률이 올라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Q | 다른 전형 대신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논술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교과성적이 낮았기 때문이었어요. 2학년까지의 성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 대학에 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은 논술전형과 정시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시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논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3학년이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부터 논술전형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일단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결정하면 거기에만 모든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합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Q | 논술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나 교재, 자료가 있다면?

A | 가장 도움이 된 분은 1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저를 가르쳐주신 논술 선생님이십니다. 기본기와 국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모의 논술이나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풀어보는 과정과 제가 쓴 글을 첨삭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전형을 준비하고 싶다면 꼭 1대1 과외가 아니더라도 도움받을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나만의 팁을 추천해주시겠어요?

A | 흔히 논술전형 시험을 정해진 답 없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쓰면 되는 시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논술 시험은 기본적으로 답이 존재하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에 맞춰 답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또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거치는 것이 좋아요. 글씨체가 지지분하다면 이를 깔끔하게 바꾸는 것도 의외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채점을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많은 학교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논술전형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정시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시전형 임예지

“꾸준히, 멘탈왕일수록 정시가 유리해요”

Q | 서울시립대학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어떤 것을 반영하며 과목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 서울시립대학교 정시전형은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인문계열은 I-II로 나뉘어 가·나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I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탐구 15%를 반영하고 인문계열 II는 국어 30%, 수학 35%, 영어 25%, 탐구 10%를 반영합니다. 정시 지원에 앞서 자신의 성적을 분석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반영 비율을 가진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능에서 탐구영역의 점수가 평소보다 좋지 않게 나왔고 국어와 영어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탐구영역을 가장 적게 반영하면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서울시립대에 지원하게 됐죠.

Q | 각 과목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 국어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자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무엇인지,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문제점과 취약한 유형을 알아야 성적을 향상시킬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수학의 경우 개념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풀이에 들어갈 경우 여러 개념을 응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이 부족하다면 6월 전까지는 개념을 숙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걸 추천해요. 영어는 무엇보다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문제씩 꾸준히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탐구 역시 수학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6월 모의고사까지는 기출문제보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기출문제는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정리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안일하게 여기다 한 번의 실수가 등급을 가르는 과목이 탐구랍니다.

Q | 어떤 사람에게 정시전형을 추천하나요?

A | 수사와 달리 정시는 늦게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과거 교과 성적 관리에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죠. 또 정시



전형은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에 낙담하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과 멘탈이 튼튼한 친구들이 도전하기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시 시즌이 끝나고 여기저기 합격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가 들뜨기 마련인데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합격하고 나면 모두가 똑같은 1학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의지를 다잡아주세요. 끝까지 똑심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시전형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Q | 정시전형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나만의 팁이 있다면?

A | 정시전형은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컨디션 조절이 필수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면 장기 레이스인 정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실컷 수다도 떠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날을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수능 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지, 피곤하면 쉬는 시간 중 언제 쪽잠을 잘지 정하고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 점심에 먹을 도시락을 미리 먹어보는 것도 의외로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시는 멘탈 싸움이기도 해요. 힘든 순간이 와도 침착하게 이겨내는 건강한 멘탈을 길러놓는 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위촉사정관에게 직접 듣는다!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학종 준비 노하우

21세기, 입학의 중심은 수시전형이다. 그중에서도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누구나 관심 있어 하지만 어렵고 까다로운 학종 준비, 과연 정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서울시립대 학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위촉사정관인 하남석, 차윤경 교수가 직접 알려주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최소 2년 반 동안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므로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수능이나 논술은 단 한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해왔다. 그러므로 시험 당일 학생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주변 환경의 문제로 시험을 망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학종은 학업 성적과 교과·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한두 번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강점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다. 최근 학종 하면 '금수저 전형'이라는 왜곡된 시선이 있는데, 학종은 정시로 입학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종을 통해 점차 저소득층 신입생이 늘어나는 추세 역시 긍정적인 효과다.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업이나 교내생활 적응도도 빠른 편이다. 실제로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사이에서는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이 연구 과제나 동아리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때가 많으며, 교우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정시 위주의 전형에서는 전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점수에만 급급해 입학 원서를 내는 학생이 많았지만, 학종에서는 그럴 염려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전공에 관심이 없다면 학종을 통해 합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류평가는 어떻게?

학종에서의 서류평가는 교과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서류평가에서는 이 학생이 왜 우리 과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학부·과의 인재상이나 성격에 맞게 준비를 잘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독서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도 유의 깊게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학업 성적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실함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도 평가 대상이다. 입학사정관이 서류평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주로 학생의 진로나 앞으로 전공과 관련한 포부 또는 학업 능력, 태도 등이다. 또한,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이를테면 전공과 관련한 활동을 오래 했거나 수상 실적이 있다면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 시선이 아닌 입학사정관의 시선에서 '이 학생은 면접에서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서류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학과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유리하다.

©gettyimages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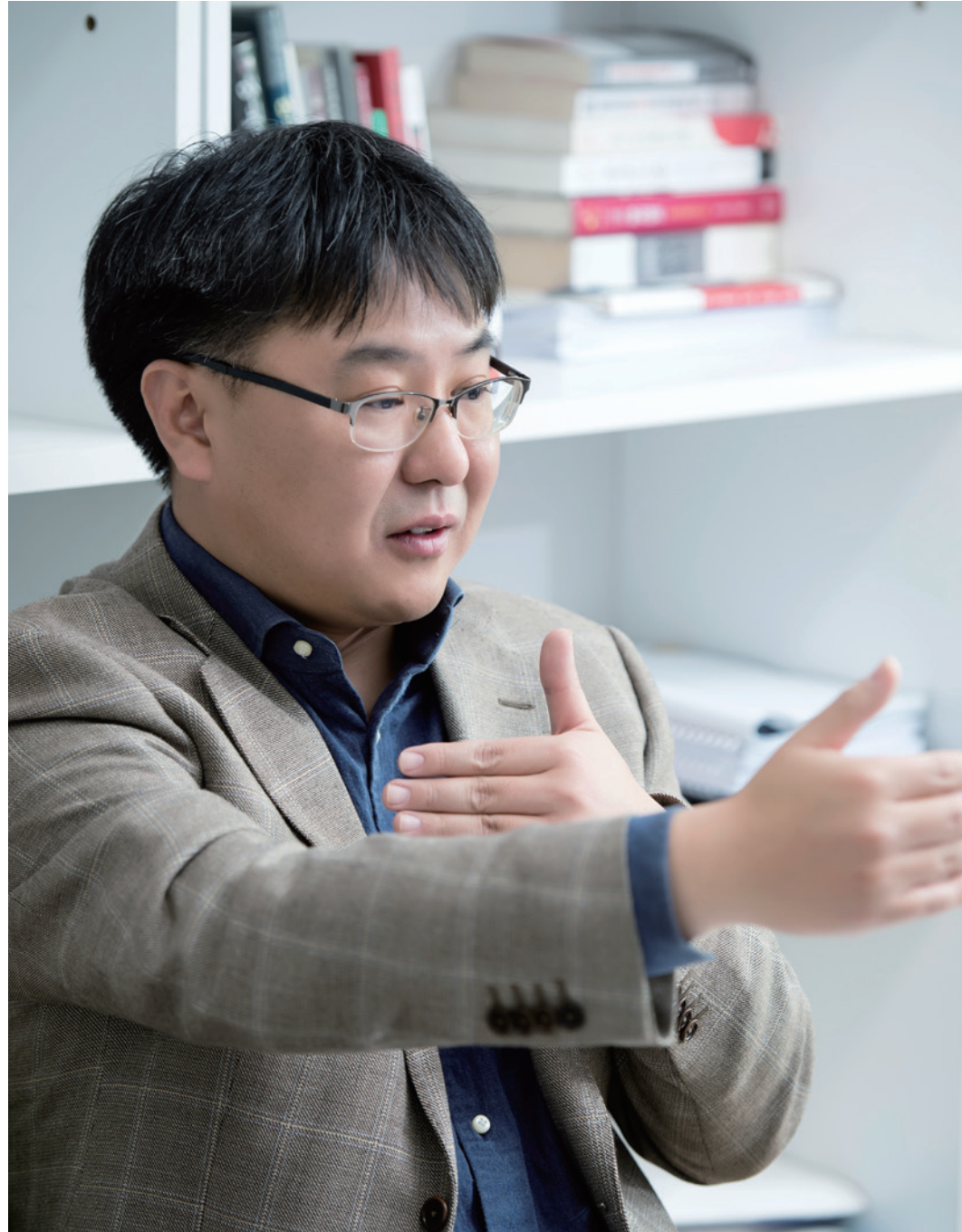
학종 준비에서 주의할 점

학종 준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첫 번째는 진로 설정이다. 입학사정관은 무엇보다 전공에 관한 관심과 입학 후 앞으로 어떻게 학업에 임할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전공과 관련한 활동 또는 연구 동기가 분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학생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이나 팀별 과제 또는 개인 수행 평가 등에서 차별화한 모습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자소서 작성 시에는 자신이 팀별 과제나 단체 활동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좋다. 대학에서는 조별 과제가 많으므로 리더십이 있고 대인 관계가 원만한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과 활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이유를 솔직하게 적고, 자신이 해온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에서 어떻게 이를 확장하고 발전해 나갈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면접에서의 팁

1단계 합격에서의 기쁨도 잠시, 학종 2단계에서는 면접이라는 커다란 벽이 예비 신입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2단계 평가 기준이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인 만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면접장 분위기는 면접을 진행하는 교수마다 각기 다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 반면,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곳도 있다. 좋은 면접자는 어떤 분위기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준비해온 이야기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면접은 누구라도 떨릴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인식하고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자. 친구나 선생님과 모의 면접은 이런 긴장감을 다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대학 생활 4년을 함께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주어진 질문에만 답하지 말고 교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자. 입학사정관이 싫어하는 유형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과 자소서에서 쓴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이다. 만약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설명하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또, 자신 있는 부분은 할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확실하게 어필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전공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키워야
 중국어문화학과 하남석 교수 Q&A



PROFILE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학 박사(중국정치경제 전공)
 서울시립대학교 강의 우수 교수상
 중국학연구회 총무이사
 아세아연구 편집위원

학생부종합전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단 한 번의 시험으로만 학생을 뽑지 않고, 고교 생활 동안 자신이 원하는 장래 희망에 맞춰 준비해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이다.

학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히 중국에 관한 관심을 넘어 중국의 사회 문제와 관련해 비판 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2018학년도 입학생 중에 맞집이나 요리에 특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다. 그 학생은 중국 요리를 좋아해서 이후 식량과 인구 문제에도 관심을 두게 된 케이스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국의 식량이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문제의식을 키웠고, 향후 이런 시선을 중국 사회로 확장해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면접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비록 아마추어지만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 합격시켰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절대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기록하면 안 된다. 간혹 고등학생이 읽기 어려운 논문이나 전공 서적을 읽었다고 하는 지원자가 있다. 그럴수록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대개 앞부분만 약간 읽고 완독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본을 읽고 중국어 원서를 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은 면접에서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만약 거짓 정보로 판명되면 절대적으로 감점 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

실수는 아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한두 권의 유명한 책만 읽는 경향이 있다. 면접 때 학생에게 감명 깊은 책을 물으면 열에 아홉은 루쉰의 <아큐정전>을 꼽는다. 미국의 유명한 기타 가게 중에 'No stairway to heaven(록 그룹 레드 제플린의 명곡)'이라는 게시문을 붙여놓은 곳이 있다. 사람들이 하도 같은 곡만 쳐서 그런 말을 써 붙였는데,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No 아큐정전'이라고 면접장에 붙여놓자는 말을 할 정도다. 꼭 <아큐정전> 말고도 루쉰의 잡문을 비롯해 다채로운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인문계열 학생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사소한 실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우리 과는 중국어문화학과인데 중어중문학과로 오해하고 온 경우도 심심찮게 봤다. 아무 생각 없이 기존에 쓴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한 듯한 자소서도 종종 발견한다. 별것 아닌 듯 하지만 그런 사소한 실수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서류 제출 전에 사실 점검이나 퇴고는 꼭 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으로 합격할 사람을 떨어뜨리진 않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
입학사정관의 공감을 얻어라
 환경공학부 차운경 교수 Q&A



PROFILE

미국 듀크대학교 환경학 박사
 대한환경공학회 학술위원회 위원
 대한상하수도학회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학생부종합전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전공에 대해 더욱 열의를 지니고 학문을 추구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전형이라 생각한다.

학종 준비 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 학과에서 마련한 인재상을 꼼꼼하게 읽기를 바란다. 각 학부·과의 인재상은 담당 교수진이 고심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서류 제출 전, 학교 전체의 인재상과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대한 파악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전공과 관련한 관심은 물론, 앞으로의 신념도 중요하게 본다. 단지 대학 합격이 목표인지, 정말 이 전공을 원해서 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과 활동은 꼭 다양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뿐이더라도 오랫동안 깊게 연구했다면 더욱 인상이 깊게 남을 수 있다. 물론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와 관련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전공과 관련한 독서 활동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소서는 침착 정도는 받아도 좋지만, 자신만의 생각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면접 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그 이유는?

지금은 사실 확인 면접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제시문 면접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 한 번은 한 지원자에게 가슴기 살균제와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가슴기 살균제의 내용물이 카펫 세정제로 쓰이면 치명적이지 않으나, 가슴기에 쓸 경우 왜 유해한가에 대한 문제였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고 추가로 심층 질문까지 던졌는데, 그 학생은 아주 논리적으로 답해 감명을 받았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두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답을 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꾸준한 독서와 시사 상식 함양이 면접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연계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학종 준비 시 주요 교과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의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소서에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으면 면접을 통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 스스로 연구나 활동의 동기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 입학사정관의 공감을 얻은 학생이라면 거의 합격한다고 본다. 중요한 건 차별화된 경험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다. 굳이 전문 시설에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나 집 근처에서 환경질 측정 등 꾸준히 했다든가, 혹은 실제로 연구는 못했더라도 앞으로 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종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을 위해 한마디.

학종은 학부·과의 인재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뽑는 전형이다. 그런 만큼 우리 학부의 인재상과 어울리는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학종을 준비하는 과정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더욱더 빠른 적응과 수준 높은 학업 생활을 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란다.



너의 인재상이 보여 **스포츠과학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인 인재상. 특히 서울시립대는 학과별로 인재상이 다른데, 그중에서 스포츠과학과는 어떤 인재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자.

스포츠과학과, 너의 정체가 궁금해!

스포츠과학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취지로 2002년 생활체육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12년, 스포츠 산업 전문가로서의 창의성 배양과 첨단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선도적 역할, 그리고 21세기 스포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로 거듭나기 위해 스포츠과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과학과는 건강, 보건, 사회, 경영, 행정, 여가 등 각종 스포츠 분야에 대한 통합적 사고 능력 및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스포츠심리학, 스포츠경영학,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의학, 여가학, 운동역학,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총 7명의 전임 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기 위한 스포츠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한민국 대표학과로 성장 중이다. 향후 진로는 프로 구단의 프런트를 비롯해 스포츠 행정, 생활체육 지도자, 연구원, 스포츠 해설가 및 평론가, 체육시설 및 체육행정 전문관리자, 스포츠센터 경영자, 스포츠산업체 및 체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다.

스포츠과학과의 인재상은?

서울시립대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학 비전의 3대 축인 교육, 연구, 봉사

중요하여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로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이 각기 다른데, 그중 스포츠과학과의 핵심 인재상은 '21세기 스포츠 전반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스포츠 전문인'이다. 이는 총 3가지로 나뉜다.

① 기초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국·영·수 기초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외국어 역량을 보유한 학생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고등학교 교과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실천해 대학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②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도전 정신과 적극적인 사고 및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

도전 정신과 강인한 정신력,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인재를 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기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체육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 스포츠를 통한 복지 실현 및 봉사 정신을 갖춘 학생

위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봉사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학업, 운동 모두 우수한 스포츠 전문가가 목표”

스포츠과학과 황선환 교수 Q&A

스포츠과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선 본인이 왜 스포츠과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답을 지녀야 해요.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기초 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할 잠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스포츠과학과에 입학할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요?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할지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우리과는 엘리트 지도자보다는 생활 체육을 활성화할 연구원이나 지도자를 양성해 전 국민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니까요.

체육 특기자만 선발하나요?

우리과는 미래 선진국형 인재상으로 학업과 운동 2가지 모두 고루 우수한 학생을 우선시해요. 꼭 선수 출신이나 엘리트 체육인만을 선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체육 특기자이면서 학업 역량 또한 우수하다면 합격에 더욱 유리할 수 있어요.

실기전형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로만 모집인원을 선발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립대는 체육 특기자 선발 전형이나 전문 운동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시에선 수학능력시험과 교과 성적 그리고 실기 고사 성적 등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므로 우리과의 인재상에 딱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려고 학종을 활용해 우리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는 따로 실기 평가는 없지만, 교과 활동



과 비교과 활동, 각종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학업성과 체육 능력을 골고루 갖춘 학생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의 합격자 중 우수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중학생 시절까지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학업에 뛰어들어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때 9등급이던 성적을 고등학교 3학년 때 2등급으로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생 자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또, 대학 진학 후에는 본인과 같은 부상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중단하지 않도록 재활 트레이너가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었고요. 향후 이 학생은 우리 과에 입학한 뒤에도 성실하게 생활했고, 학업 성적도 최우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끝으로 스포츠과학과에 입학할 준비 중이거나 관심을 지닌 예비 서울시립대생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과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스스로 '왜 스포츠과학과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교과 성적은 물론 리더십 함양이나 봉사 정신도 매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의 7가지 특징

좋은 자기소개서란 과연 어떤 것일까?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자소서 잘 쓰는 법.

POINT
1

시작은 참신하게!

모든 글은 첫 문장을 떼기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가 유명한 격언이나 문구로 자기소개서를 시작하곤 한다. 하지만 인용할 문구가 상투적이면 식상한 느낌이 든다. 굳이 멋 있는 말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전체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은 문장이야말로 더욱더 깔끔하고 보기에 좋다.

입학사정관 COMMENT

“한 학생이 중국 한시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문구여서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구절이 자신의 상황과 꼭 맞는 비유여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POINT
3

전공과 연결된 나만의 스토리

좋은 글이란 나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전공과 관련해 생긴 관심사를 나만의 문제 의식으로 심화하고, 이를 다시 전공과 연결할 수 있다면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너무 스토리에 심취해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

입학사정관 COMMENT

“평소 우리나라 농촌 문제와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생이 있었어요. 우연히 중국의 농촌 문제를 접하고 한국과 비슷한 상황임을 안 뒤로 '농민공(농민 출신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가 신선했죠.”

©gettyimages/bank

POINT
2

분량보다는 핵심에 신경 써라

자소서는 말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은 지원자가 왜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고교 시절 목표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조리 있게 서술하는 것이다. 목적부터 이유,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 COMMENT

“좋은 자소서를 위한 핵심은 무엇보다 학부·과별 인재상입니다. 또, 자소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이거나 사정관이 꼭 검토하길 바라는 활동 한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서술해야 효과적입니다.”

POINT
4

특이한 경험보다는 신선한 시각

학종에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나 이력을 지닌 학생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하지만 특이한 활동 경력이 없어도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학교생활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버릇을 들이면 좋다.

입학사정관 COMMENT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 남들과 색다른 경험을 하기는 어려워요. 입학사정관도 그 부분에 대해 잘 알죠. 그 와중에도 평범한 일상을 자기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지원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더 관심이 생기죠.”

POINT
6

반드시 직접 쓸 것!

자소서의 경우, 컨설팅이나 첨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도 이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첨삭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표현이 조금 어눌하거나 세련되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공감을 살 수 있다.

입학사정관 COMMENT

“간혹 샘플을 이용해 작성한 듯한 자소서를 볼 때가 있어요. 이 경우 학생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렵죠. 작문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지원자 본인이 쓴 자소서가 더 설득력 있고 다른 학생과 차별화될 수 있어요.”

POINT
5

작문 실력보단 'fact'가 중요!

작문 실력이 뛰어나면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닌 내용이기 때문이다. '생각 50분, 쓰기 10분'이라는 말이 있다. 글쓰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말할지 정리하는 연습을 들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 COMMENT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쓴 지원자를 선호해요. 주의할 점은 아무리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중구난방이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POINT
7

절대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자소서를 쓸 때 지원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오타자, 그리고 학과명을 잘못 표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입학사정관이 좋게 볼 리 없다. 학교와 학과의 인재상, 그리고 오타자 확인은 자소서의 기본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입학사정관 COMMENT

“지원자들이 여러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다 보니 학교명이나 학과명을 잘못 쓸 때가 종종 있어요. 글 쓴 뒤, 퇴고와 사실 점검은 기본이에요. 자소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써야 나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면접, 진실 혹은 거짓

많은 학생이 막연히 두렵게만 생각하는 면접,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서울시립대 합격생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통해 그 실상을 알아보자.

“면접은 준비를 오랫동안 철저하게 할수록 도움이 된다?”

NO

면접을 오랫동안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학교생활을 서류와 자소서에서 거짓 없이 적고,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면, 학원에서 면접 준비를 너무 오래 해서 전형적인 답만 하는 친구보다는 약간 어눌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줄 아는 친구가 더 좋아요.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죠.

하남석(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면접 시 생활기록부 내용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NO

면접에 유리하려면 생활기록부 매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서울시립대는 전공 또는 인성 관련 문제가 없으며,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고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에는 자신이 해온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자소서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쓰고, 면접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또, 면접 시간은 한정돼 있으므로 많은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질문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해요. 면접 일 전에 스스로 예상 질문을 뽑고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해서 순발력이나 표현 능력을 키우면 실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김영민(환경공학과 17학번)

“제시문 면접이 아닌 서류기반 확인면접이다?”

YES

수험생 중 일부에서는 아직도 서울시립대 면접을 제시문으로 진행한다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립대 면접은 자소서와 학생부를 토대로 한 서류기반 확인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학교와 비교해 면접 시간이 15분으로 긴 편이어서 혹시 질문 난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입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대부분 교수님과 입학사정관의 배려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면접 시간이 길다고 난도가 높을 것 같다는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류민열(통계학과 14학번)

“전공 문제는 직접적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YES

새로 입학 준비를 하는 예비 후배를 만나면 면접을 볼 때 전공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면접에서 전공 문제를 직접적으로 출제하지 않으므로 면접을 준비할 때 전공에 관한 지식을 쌓기보다는 자신의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잘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우선 면접 전에 생활기록부나 자소서를 미리 보고 자신이 잘 기억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정하세요. 저는 면접 전에 제가 했던 활동에 대해 많게는 1~2쪽, 적게는 1/2쪽 정도로 정리해놓았고, 이를 통해 면접을 더욱더 쉽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면 실전에서 좀 더 익숙하고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조성훈(국사학-도시역사경관학과 17학번)



“간혹 틀린 답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YES

입학사정관으로 면접을 치르다 보면 간혹 면접을 위해 꾸며낸 듯한 답변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면접에서 자기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논리적이거나 틀에 박힌 답변을 하는 학생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간혹 이 학생이 학원에서 배운 대로 답변을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도 있죠.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말은 좀 버벅거리더라도 자신이 아는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하는 학생이나 융통성을 발휘해 재치 있는 답변을 하는 학생에게 더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차윤경(환경공학부 교수)

“면접 시 심화 질문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NO

저는 대학 입학 후 “면접에서 심화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해요?”라고 고민하는 후배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하지만 예전의 제시문 면접이 사라진 후 요즘 면접은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 기반한 서류 확인 위주의 면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길 바라요. 면접에서는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해온 활동이나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자신이 해당 학과나 학부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본인이 열과 성을 쏟아부어 최선을 다한 활동이라면 면접에서 주저하지 않고 잘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도록 미리 모의 연습을 충분히 하길 바랍니다.

박혜영(경제학과 16학번)

논술 채점, 어떻게 이뤄질까?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이것만은 꼭!

논술전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사람은 누굴까? 바로 직접 논술을 평가하는 채점위원이다. 임희종(경영학부)·김정래(수학과) 교수가 서울시립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 요령을 귀띔했다.

인문계 논술

논리를 기반으로 한 설득력 있는 쓰기 능력 중요

임희종 교수



Q 총 3개 문항에 걸쳐 수험생의 다양한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인문계 논술. 각 문항별로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배점 및 채점 기준은?

A 1번 문항의 경우 4가지 지문을 2가지 상반된 주장으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부터 잘못 되면 논지 자체가 엉뚱하게 전개되기 때문. 2번 문항은 주로 통계를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통계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1번의 상반되는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1번 문항에서 제대로 된 분류가 선행되어야 3번 문항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재차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보다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느냐가 논술 고득점의 비결이다.

Q 정확한 독해 능력은 논술 고득점의 핵심이다. 평소에 꾸준히 하면 효과적인 훈련과 습관이 있다면?

A 흔히 독서를 권장하지만 우리는 보통 인쇄물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글을 읽되, 저자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신문 사설을 많이 읽는 것이 논술 준비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신문 사설이 반드시 올바른 식견과 주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작정 읽으려 하기보다는 필자의 논거와 논리적 전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비평하는 것이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최근 들어 고1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고교 3년간 시기별로 어떤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도움이 될까?

A 논술을 학년별로 대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2학년 1학기까지는 비판적 독서 습관을 들이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친구들과 서로의 글을 차례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비판적 독해를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글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학년 2학기부터는 자신이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고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면서 유형을 파악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자연계 논술

풀이 과정의 정확성과 서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본다

김정래 교수



Q 서울시립대의 경우 수리형 논술고사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배점 및 채점 기준은?

A 수리형 논술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론과 서술 능력, 그리고 수리 계산 능력이다. 출제 문항당 100점이지만 문항 내 배점과 채점 기준은 각 문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는 중간 계산 과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잘 서술되어 있으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또 몇 개의 지식을 순차적으로 사용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은 서술 능력뿐만 아니라 정확한 계산 능력도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된다.

Q 수리형 논술의 출제 범위는 고교 수학 전 과정이다. 고득점을 위해 이것만큼은 꼭 집중해서 학습해야 할 단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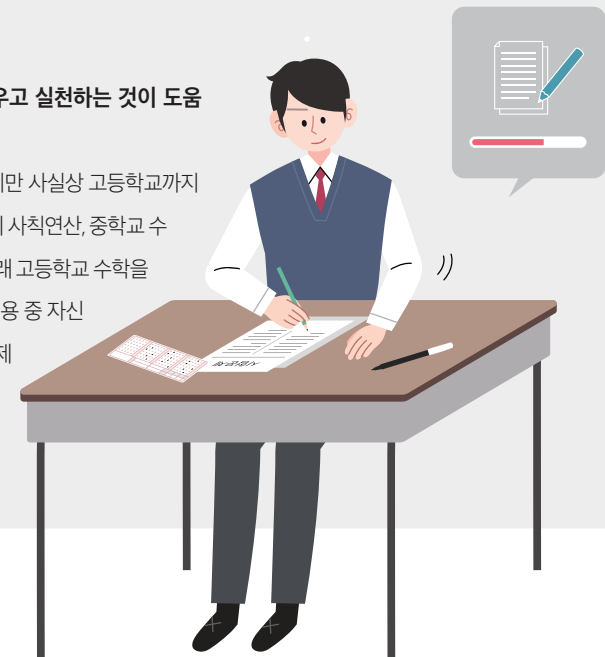
A 서울시립대 수리형 논술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미분과 적분은 매년 출제됐고, 최근에는 확률/통계 영역도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출제위원회의에서 언제든지 다르게 결정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정 영역 위주의 심화 학습은 논술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Q 자연계 논술의 핵심은 과정 중심의 서술형 풀이 과정이다. 수능과 같은 객관식, 단답형 문제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A 수리형 논술은 수능 같은 단답형 문제와 다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수능에서도 충분히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단지 논술은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 서술형으로 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별도로 수리형 논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정답을 맞히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끝까지 풀이 과정을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좋지만 계산이 틀렸거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기도 하다.

Q 논술 전형에 대비해 고교 3년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A 수리형 논술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수학 전 범위이지만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배운 수학의 전 범위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초등학교 수학의 사칙연산, 중학교 수학의 함수 및 도형, 경우의 수 등을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 아래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1 때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자신이 약한 부분을 철저히 복습해주는 것이 좋다. 또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매일매일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논술에 훨씬 도움이 된다.



알고보면 더 매력적인 서울시립대 학과 3

진학을 앞두고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조금은 새로운 학과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립대에는 자세히 볼수록 매력적인 학과가 많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3개 학과를 소개한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교통은 사회 발전의 기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교통체계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통공학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립대의 교통공학과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회를 이끌어갈 교통공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는 1988년 도시공학과 내 교통공학전공으로 출발해 2005년 독립 학과로 분리됐다. 서울 내 대학에서 교통공학 학부 과정이 있는 곳은 서울시립대가 유일하다.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교통 분야의 연구로 국가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현재의 필요를 해소하는 연구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교통의 미래를 열고 있다.

무엇을 배우나요

교육목표

교통공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이끌어갈 교통공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교통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익히고 국내외 교통 문제의 경제·사회·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실용적인 교통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주요 과목

교통학개론 I·II 교통공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교통학개론 I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교통을 폭넓게 배우고, 교통학개론 II에서 공학적인 면에서의 교통을 배우며 기초를 쌓는다.

교통류 이론 '교통류'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흐름을 말한다. 교통신호의 운영, 도로의 기하 구조, 주변 시설물에 따른 차량 통행 흐름의 이해와 다양한 이론과 모형을 학습하여 전체적인 교통류를 이해하는 과목이다.

교통전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교통공학 문제 해결 능력

키우는 종합 과목이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고, 복잡한 교통 문제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습으로 익힌다.

도로설계 및 실습 도로 설계도면을 이해하고 도로 기하 구조, 설계 요소를 이해하는 과목이다. 졸업 후 모든 교통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종합 사고 역량을 이룬 수업과 설계 실습으로 배운다.

지능형 교통체계 오늘날의 첨단 교통체계와 전통적인 교통 관리의 차이를 배우고 지능형 교통체계의 세부 분야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팀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

교통사고 분석 및 실습 교통사고의 발생 현황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해 사고 발생 과정을 유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통운영 및 실습 교통안전 시설 운영의 이론과 제도를 배운다. 교통운영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실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 구성이 탄탄하다.



©gettyimages/bank



3줄 요약

- # 교통공학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학문 분야다.
-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는 서울 내 유일한 교통공학 학부 과정이다.
- #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과 과정을 공부해 다양한 교통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는

교통 문제 해결은 도시 및 국가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교통 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만큼 교통공학 전공자의 사회 진출 분야도 다양하다. 앞으로도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교통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진로

-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구청, 경기도청 등
-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LH공사, SH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 국립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건설 관련 기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등
- IT 관련 기업** SK C&C, LG CNS, 삼성SDS 등
- 엔지니어링회사** 유신코퍼레이션, 건화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서영덕(14학번)

우리 학과 이래서 좋다!

교통공학과가 생소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을 다루는 만큼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전공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공학이기에, 진학하면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학과 전공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입사를 준비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정도로 실용적이고, 강의 수준도 높습니다.

교통공학과에 어울리는 학생은?

교통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누구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전공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어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필요하고, 과학 중에서 특히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교통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고, 과학 서적을 읽어 기초적인 교통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정보공학과 실습으로 준비되는 미래 공간정보 전문가

공간정보공학이란 공간정보를 수집해 저장·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표시하거나 종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공간정보는 지표·지하·지상의 토지 및 구조물의 지리적 위치·높이·형상 범위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데이터와 자연·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데이터로 구성된다. 공간정보 고유 기술로는 GIS, LIS, 측량, GPS, 사진측량, 원격탐사 등이 있다.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는 1997년 지적정보학과로 설립되었다. 이후 IT시대에 맞는 공간정보공학 분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에 공간정보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과이며, 세계 10여 개 명문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해 국제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무엇을 배우나요

교육목표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간정보 문제를 과학적·공학적으로 해결하고, 지리적 현상 및 행위를 분석·관리해 사회 각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이나 레이저-GPS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지리정보의 획득과 처리, 자료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 등과 관련된 방법론과 기술을 학습하고 연구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에 능숙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 과정은 대학원 진학과 취업 등 2가지 경우를 고려해 구성되어 있다.

주요 과목

공간정보공학개론 공간정보공학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지식을 개략적으로 학습하여 공간정보공학의 기본 개념과 주요 활용 사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측량정보공학 I·II 측량정보공학이란 인간의 활동 영역이 미치는 공간의 위치 및 공간정보를 수집·측정·처리하고 여러 분야의 사용자들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수업에서 여러 측량의 기초이론과 실무적 개념을 학습한다.

공간정보프로그래밍 I·II 현재 공학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되는 기초 언어인 C언어와 전공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되는 C#언어를 익힌다.

지리정보체계론(GIS) I·II GIS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각종 공간 분석 기법 등 GIS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운다. 또 국내외 GIS 응용 사례와 발전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원격탐사 원격탐사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한다. 전자기파의 대기 및 지표면과의 상호작용, 원격탐사 위성 및 센서, 마이크로웨이브 센싱, 열적외선탐사, 영상처리 기법, 원격탐사의 활용 등을 다룬다.

위성측위학(GNSS) I·II GNSS 측위의 기본적인 이론 및 활용을 이해하는 수업이다. 기준계의 개념과 기하 측지학에 대해 공부하고, 위성의 궤도와 GNSS 측위 원리, 관측치의 특징과 획득 방법을 배운다.

지적측량학 지적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습득한다. 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익히며, 기초 측량을 포함하여 세부 측량을 습득한다.

사진측량학 컴퓨터를 활용해 공간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한다.

교통지리정보체계론 GIS-T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GIS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교통 분야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모형,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다. 전통적인 4단계 교통 수요 모형과 GIS-T를 통한 수요 추정 실습을 병행한다.



3줄 요약

- # 공간정보공학은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 서울시립대에서 다양한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 대학원 진학과 취업, 2가지 경우를 고려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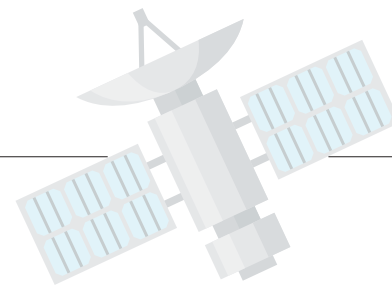
졸업 후 진로는



공간정보공학은 공간정보 고유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인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VR),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술을 융합해 지리학, 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축학, 도시공학, 농학, 임학, 지질학 등 응용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발전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 진로

- 중앙부처 공무원** 해양수산부,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등
- 지적 공무원 및 공기업**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 NH공사 등
- 연구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천문연구원, 공간정보산업협회, 해양조사협회 등
- 일반 기업**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중앙합업 등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박선영(17학번)

우리 학과 이래서 좋다!

최고의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전공 수업이 가장 큰 '자부심 포인트'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을 더욱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생깁니다. 기초 전공수업에서부터 드론을 조작하며 지도를 만드는 실습을 할 정도로 다양한 실습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도시과학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밀접한 '도시'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학과 인원이 적은 만큼 동기와 선배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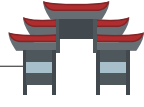
공간정보공학과에 어울리는 학생은?

수학과 전산, 물리 등이 공간정보공학의 기본 소양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와 독서, 자율활동을 해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전공에 잘 어울릴 것입니다. 공간정보공학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공간정보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지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강연을 듣거나 스스로 학습해보길 권합니다.

중국어문화학과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갖춘 중국통

중국은 우리의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대 중국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면서 중국어 전공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현업에서는 어학 실력보다는 중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이고, 그들의 사회·문화적 동향을 파악하고 보다 적절한 접근법과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 단계 높은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07년에 설립됐다. 중국어 능력과 중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야를 겸비한 중국 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존 중국 관련 학과와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을 배우나요

교육목표

중국어문화학과는 중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중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대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을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시선으로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다. 어학 능력과 중국문화 이해는 물론 인문적 사유능력 강화와 문화 창조능력 함양을 세부 교육목표로 세웠다.

주요 과목

중국의 언어와 문화 / 중국입문 중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시작하는 기초 과목이다.

중국어 실습 중국어에 능숙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어학능력을 키우는 과목.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매 학기 포함된 전공 수업이며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이후 중국어 회화와 문법을 전 학년에 걸쳐 배우게 된다.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 중국 문명의 역사를 통해 중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현대 중국의 문화와 사회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현대 중국을 새롭게 이해하고 중국문화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익힌다.

특별 프로그램

C-cafe 중국인 유학생 튜터와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 책으로는 알 수 없는 오늘날 중국의 유행어 및 관용어를 익히면서 동세대의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C-camp 3주 동안 중국 대학교에 머물면서 언어 교육을 받고 현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3줄 요약

- # 중국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다.
- # 중국어문화학과는 어학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모두 추구한다.
- # 중국어 가능자를 넘어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이다.



졸업 후 진로는

중국어 실력과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췄다는 점이 중국어문화학과 졸업생들의 장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생들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세계 G2로 분류될 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오늘날, 중국 전문가 수요는 어느 곳에서나 늘고 있다.

분야별 진로

- 정부기관** 외무부 및 국가 특수기관
- 기업체** 무역업체, 해운업체, 무역사무원, 해외영업원, 한·중합작회사, 호텔, 여행사, 여행사무원, 항공사 승무원 등
- 학계·교육계** 중국문제연구소 등 학술연구기관, 중·고교 중국어 교사, 중국어 강사, 학원강사, 대학교수 등
- 언론·출판·문화계** 작가(소설가, 시인, 아동문학), 언론인, 방송 구성작가, 비평가, 문화콘텐츠 기획원, 번역가 등
- 기타** 통역사, 번역사, 관광통역 안내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학생회장이 들려주는 학과 이야기

임지현(17학번)

우리 학과 이래서 좋다!

지난해 설립 10주년인 젊은 학과입니다. 시대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교육 과정과 열정적인 교수님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C-camp와 C-cafe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어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중국어문화학과에 어울리는 학생은?

중국어에 몰라서 걱정하는 지원자들도 있는데 사실 학우들 대부분이 중국어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들어왔습니다. 언어 교육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뤄지기 때문에 입학할 때 중국어를 못해도 무난하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 전문가로 활약하고 싶다면 걱정 말고 도전해보세요.

사진으로 떠나는 서울시립대 건축기행

예뻐기로 소문난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아름다운 조경과 멋진 건물들 덕분에 어디든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화보처럼 멋진 사진을 만날 수 있다. 드라마, 광고는 물론 웨딩사진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명소들을 만나보자.



백년을 이어온 금지, 백년을 이어갈 미래 100주년 기념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건물로 '2018 대한민국 우수 시설학교 공모전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총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목적 강의실은 물론 4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 영화음악 전문 도서관, 농구 코트(1), 배드민턴 코트(4)를 구비한 실내체육관까지 갖췄다.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박물관,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공간을 겸비한 서울시립대의 얼굴이다.

1100주년 기념관 내 도서관은 영화 및 음악 전문 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공간. 영화 상영실과 개인을 위한 음악 감상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2가, 나, 다 3개 동으로 구성된 100주년 기념관은 동과 동 사이의 경계 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시대생에게 언제나 활짝 열린 공간임을 의미하며, 곳곳에 100주년을 상징하는 재미있는 표식들도 숨어 있다.



사계절 멋스러운 시대인의 자랑 하늘뭇·정문

학교를 품고 있는 배봉산의 정기를 받은 하늘뭇은 서울시립 대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포토존 중 하나. 봄에는 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에는 푸른 버드나무가 가지를 드리우며,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불타오르고, 겨울에는 눈꽃이 절경을 이룬다.

입구에서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정문은 서울시립대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서울의 영문 첫 글자인 'S'를 모티브로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하는 태극을 형상화했다.



- 1 시대생들의 데이트 명소 하늘뭇. 학생들엔 '배봉탕'이라는 별칭이 더 익숙하다.
- 2 강의실에서 지금은 전시공간으로 바뀐 박물관. 고즈넉한 캠퍼스를 느끼고 싶을 때 방문해볼 만하다.
- 3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중앙도서관 내 열람실, 스터디룸과 노트북실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
- 4 시대생들이 잠시 열공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는 휴게공간.
- 5 답답한 철문을 걷어내고 학교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정문을 대신했다.



서울시립대의 터줏대감 대강당·음악관·학생회관

서울시립대 캠퍼스 생활은 대강당으로 시작해 대강당에서 끝난다.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굵직굵직한 학내 행사가 모두 이곳에서 치러진다. 또 2016년 교정 안쪽으로 이전한 음악관은 유려한 외관 속에 개인 레슨실, 강의실, 콘서트홀까지 품고 있는 팔방미인 시대생의 랜드마크는 단연 학생회관이다. 식당, 휴게실은 물론 각종 민원 서비스실, 우체국, 보건소까지 갖췄다.

2



- 1 건물 외벽을 뒤덮은 담쟁이가 고풍스러운 느낌의 대강당. 두근두근 시대생 라이프의 첫 관문이다.
- 2 각종 편의시설과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된 학생회관. 푸짐한 세숫대야 냉면부터 깔끔한 맛의 상하이 스파게티, 패티 두께부터 남다른 햄버거 등이 유명하다.
- 3 2016년 배봉산 기슭으로 자리를 옮긴 음악관. 3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음향시설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3

벽들마다 켜켜이 쌓인 역사 경농관·자작마루

100주년 기념관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인큐베이터라면, 경농관, 자작마루는 지금까지 서울시립대가 걸어온 100년의 자랑스러운 연혁이다. 1937년 청량리 교사에서 지금의 전동동으로 이전하면서 세워진 건물들로 경농관은 대학본부, 자작마루는 대강당으로 쓰였다. 페디먼트 형식의 파사드 등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서울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4



5

- 4 현재 전시실·서울학연구소 등으로 활용 중인 경농관 전경. 2013년 건축학부 이충기 교수가 리모델링해 시간의 무게는 이기되 오랜 역사와 자부심은 고스란히 살렸다.
- 5 소강당이었던 자작마루는 현재 전시, 세미나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보세요”

성주명
(환경공학부 18학번)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환경오염을 줄이고 방지하는 기술을 공부하고 있어요. 산업이 발전할수록 쓰레기, 폐수, 소음, 악취와 같이 생태계를 해치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우리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지속시키기 위해 여러 유해 물질을 억제하는 기술을 배우요.

여러 대학에 환경공학 관련 학과가 있는데, 특별히 서울시립대를 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서울시립대는 1980년에 환경공학과를 처음으로 개설한 학교예요. 다른 대학보다 앞선 만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유명하죠. 환경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교수님도 많고요. 고등학생 때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는 적정 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면서 환경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환경공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니 서울시립대가 가장 좋았어요. 교수진과 커리큘럼이 뛰어나고, 등록금과 폭넓은 장학금 혜택 등 학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마음에 들어 서울시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립대 새내기로 지내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게 좋아요. 학과 학생회에 참여해 교내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 축제 프로그램을 직접 이끄는 게 재밌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취미 삼아 즐겼던 음악 활동을 대학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Tru-hz'라는 흑인음악 동아리에서 래퍼를 맡

고 있는데, 직접 가사와 멜로디를 쓰기도 하고 녹음도 해봐요. 가끔 공부에 지칠 때가 있긴 하지만 학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스트레스가 풀려서 학업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수업이 있나요?

이제 2학년이라 전공 수업을 다양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창의공학기초설계 수업이 정말 재밌어요. 환경공학 기초 학문을 쌓는 건데, 딱딱한 공식을 익히는 게 아니라 수행 과제를 팀원들과 토론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 좋죠. 아직 배울 게 많아서 학과 생활이 더 기대돼요. 다음 학기부터는 조경학과를 복수전공하려고요. 주전공과는 조금 다른 분야지만 생태 환경을 디자인하는 공부를 해보면 설계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하다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꿈을 품고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목표가 있진 않지만, 제가 원하는 꿈을 찾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믿어요. 서울시립대는 학생들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니까요. 우리 학교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정도로 학비가 저렴하고 장학금 제도가 다양해서 많은 학생이 큰 부담 없이 학업에 임할 수 있어요.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이 다양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도 있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관심 업계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주전공과 복수전공, 동아리, 대외 활동 등 서울시립대에서 누릴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해 꿈을 이룰 거예요.

정해진 길은 없다

“전문직에 종사하려면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전공으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공과 진로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흔한 고민이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데에 정해진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전공을 발판으로 원하는 분야에 진출한 서울시립대학교 동문을 만나봤다.

“ 모든 순간이 꿈을 위한 디딤돌 ”

MBN 이담 아나운서(조경학과 05학번)

Q |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A | 2010년 MBN에 입사해서 10년 차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운 좋게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뉴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말에 하는 'MBN 뉴스와이드', '열린 TV 열린 세상'이라는 교양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이 외에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같은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Q |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어른들이 뉴스는 꼭 챙겨보시는 걸 보고, 뉴스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Q |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조경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A | 이과 공부가 적성에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신문 방송학과나 언론홍보학과를 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께서 꼭 학과대로 진로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른 분야의 지식이 아나운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건축,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경학과를 선택했어요. 실제로 조경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지식이 뉴스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도

시 관련한 뉴스나 정책에 관한 뉴스에 대한 이해가 빠르죠.

Q |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A | 전공 공부가 적성에 맞아 4년 내내 즐겁게 생활했어요. 특히 캠퍼스가 넓고 예뻐서 질 높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어요. 집중이 안 될 때 캠퍼스를 걸으면서 재충전을 하곤 했거든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나 학회 활동은 못했지만 대신 학과 생활을 열심히 했죠.

Q |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A | 조경학과는 팀 프로젝트가 많은데, 교수님께 프로젝트에 관한 피드백을 받기 전날 밤을 새워요. 그럼 그날은 교실에 칸막이를 두고 쪽잠을 자곤 했어요. 고3 때처럼 서로 깨워주고 아침까지 프로젝트를 준비한 다음, 피로한 모습으로 발표하곤 했죠. 거창한 것들보다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Q | 조경학 공부를 하면서 다른 진로를 생각해보진 않았는지 궁금해요.

A | 실제로 한 교수님께서 조경학 공부를 더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고민을 했었어요. 조경학 공부도 재밌었고,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진 상태여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첫사랑을 이뤄보자는 생각에 아나운서에 도전했



죠.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서, 1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국, 지역방송국에서 뉴스를 맡았다가, MBN에 입사하게 됐어요.

Q |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떤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A | 방송국이나 홍보대사 활동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방송국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데 유리해요. 하지만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발표를 도맡아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Q | 아나운서로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다면요?

A | 뉴스 속보나 특보를 전하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또 주요 사건에 대한 취재, 보도 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해결됐을 때도 뿌듯함을 느끼죠.

Q | 요즘은 TV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아나운서가 가진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실제로 한 행사에서 저를 TV에서 본 적이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

봤는데 요즘은 TV를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나운서는 방송을 좀 더 많은 분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나운서가 가진 강점이지요.

Q |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가요?

A |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부분까지 전달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아나운서라고 하면 단순히 대본을 읽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전달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통해 뉴스의 핵심을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Q | 서울시립대 입학할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서울시립대학교는 캠퍼스가 정말 넓고 잘 꾸며져 있어요. 캠퍼스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질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웃음)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만큼 학교의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해요. 반값 등록금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지요. 잘 준비하셔서 이런 많은 장점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 대학에서 자신의 ‘스윗 스팟’을 찾아야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우지훈 변호사(세무학과 04학번)

Q |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을 전공해 조세, 금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각종 기업과 공사의 자문 변호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등 각종 학술단체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Q | 현재 8년 차 변호사인데, 업무를 하면서 느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알려주세요.

A | 크게 성실성, 참을성, 표현력을 꼽고 싶어요. 업무량과 난도가 높은 만큼 엉덩이를 오랜 시간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하고, 의뢰인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인내심 깊은 자세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변호는 결국 설득이 본질입니다. 재판부를 설득해야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 유창한 언변은 업무에 큰 장점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는 정의를 추구하는 전문직입니다. 이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위, 소득 모두 예전에 비해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사건명은 말할 수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의 조세 소송도 다수 수행 중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도 맡았었지요. 모두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사회 문제의 종착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결할 때의 보람이 큼니다.

Q | 조세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학회 활동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학을 공부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나요?

A | 조세 분야는 치밀한 논리 싸움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아주 논리적인 분야입니다. 1년에 3~4편씩 논문을 출간하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Q |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 적성을 알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선택했던 건가요?

A | 어릴 때 딸던 누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시

립대를 강력하게 추천하기에 알아보게 됐어요. 당시 다른 학교, 다른 학과를 알아본 결과 천편일률적인 학과가 많았고, 1학년 때에는 학부제로 운영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전공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등록금이 저렴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학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Q | 입학 후 학교와 학과 선택에 대한 결정이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A | 입학설명회 때 “세무학은 경영학, 경제학 및 법학의 융합학문이다”라고 한 교수님의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실제로 공부해보니 그만큼 세무학을 잘 표현한 말이 없더군요. 졸업 이수학점 140학점 중 100학점 넘게 전공 수업만으로 채웠습니다. 또 40학점은 법학 수업으로 채웠으니 말다 했죠.(웃음)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지훈’도 없었을 거예요.

Q | 서울시립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는 이유도 그 때문인가요?

A | 맞아요. 학교를 정말 사랑해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사회를 선도해 온 대학이라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학교에서 교수님을 뵈고 학우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져요. 약 15년째 서울시립대를 다니고 있어서 ‘시립대 지박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예요.(웃음) 다른 대학에서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조세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서울시립대만 한 대학은 없다고 믿습니다.

Q | 한마디 한마디에서 애교심이 엿보입니다.(웃음)

A | 난 내 자신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 곁에서 함께 똑똑해지고 싶어요. 예전에 전 서울시립대 총장님이신 이상범 교수님과 독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학교에 헌신해달라’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받은 도움이 많았습니다.



Q | 서울시립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A | 일단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실패하고 방향하던 나를 은사님들이 언제나 바로잡아주셨어요. 지금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응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되고부터 장학금도 보태고 학교에 진로 특강도 나가면서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나가는 중입니다.(웃음)

Q |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서울시립대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겠군요.

A |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 즉 낫 놓고 여유 부릴 수만은 없는 20대에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구 용어 중에 ‘스윗 스팟(sweet spo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들어맞는 기분 좋은 타격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인생의 스윗 스팟은 감정과 열정, 가치관이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은 이 스윗 스팟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무슨 일을 할 때 벅차 오르는지, 또 평생 후회하지 않을 분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대학생 시절입니다.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이 어떤 꿈을 꾸든 서울시립대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실 있고 단단한 우리 학교에서 밝은 미래를 설계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미리 상상해보라!”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 조윤진(영어영문학과 05학번)



Q | 교사를 꿈꾸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 나에게는 학창 시절의 경험과 추억이 아주 소중한데요. '학교'라는 공간은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영어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 역시 의미 있는 수업을 꾸리며,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웃음)



Q |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었나요?

A |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며 교직 이수 과정을 통해 임용시험 자격인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췄어요. 서울시립대에는 따로 사범대가 없지만 임용고시 주요 교과목인 교육학을 배울 수 있어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어요.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1년 다녀왔고, 뉴욕 주립대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 과정을 밟았고요. 임용시험은 1년간 준비해 2012년에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니다.

Q | 장래 희망이 교사인 친구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할 임용고시에 대해 묻고 싶어요.

A | 중등 영어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임용고시는 크게 교육학과 전공과목 2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과목의 세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공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많은 고시생이 노량진 학원가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나는 많은 분량의 학습 범위를 한번에 듣고 복습하는 것이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독학과 그룹 스터디를 택했습니다.

고시 준비에 시간을 한없이 할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졸업 직후부터 함께 공부할 스터디원을 구했어요. 먼저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서울시립대에서도 시험을 준비할 사람을 따로 구했죠. 스터디 학습만 2개를 병행한 거예요.

Q | 보통 그룹 스터디를 병행하지는 않는데, 대단하세요.

A | 하지만 이 방법 덕에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개인 공부를 한 후 스터디원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음 학습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2개의 스터디를 병행하다 보니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금세 파악하게 됐고, 학습량은 물론 습득하는 지식의 결이 매우 촘촘해졌어요.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더군요.

Q | 모르는 부분을 메운 것이 시험 합격으로 이끌었나 봅니다.

A | 맞아요.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터디원과 함께 했기에 무던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니다. 내가 한 방법이 모두가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본인의 학습 스타일과 효율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Q | 힘들게 노력해 교사가 된 만큼 보람도 크겠어요.

A | 학생 때는 그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으로 기억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사가 되면 수업 이외에도 할 일이 매우 많아요. 담임교사 업무부터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력과 연륜이 쌓였지만, 처음 발령받은 학교에서 맡은 1학년 담임 때는 정말 어설퍼어요.(웃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학생들을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선생님 덕분에 많이 성장했다는 감사의 말을 듣다 보면 스스로 '행복한 교사'라고 느낍니다.

Q | 오랜 꿈을 이루었는데, 진로를 바꾸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A | 물론 있었어요. 대학에 온 뒤에도 교사가 될 것인지 다른 길을 찾을 것

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라는 꿈을 꿔던 그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간절히 꿈꾸는 사람은 성취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현하는 것이죠.

Q |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이 글을 읽는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 진로 설정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를 꿈꾼다면 단순히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에서 벗어나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감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의 순간은 원하던 직업을 가진 이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전형 안내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최다 논술 모집인원 줄고 정시 늘어나

서울시립대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정원은 총 1,812명이다.

가장 많은 인원인 556명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해
수시모집으로 1,075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 635명을 모집한다.

지난해에 비해 수시모집에서 20명이 줄고 정시모집인원이 22명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정시모집은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 반영한다.

서울시립대 입학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원전략을 세워보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교사추천서 폐지

학생부교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서울시립대는 수험생의 안정적인 입학 준비를 위해 2019학년도 입학전형의 기초를 유지했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사추천서가 폐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또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9명 줄어든다.

수시모집 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과 학생부교과, 논술, 그리고 실기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종합에는 고른기회전형과 사회공헌·통합전형 등이 포함된다.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 727명 중 고른기회전형으로 139명, 사회공헌·통합전형으로 32명을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

전체 전형 중 가장 많은 556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서류평가로 2~4배수를 먼저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비율로 점수를 반영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1단계 서류평가 선발 인원의 경우 모집단위 인원별로 차이가 있다. 1~2명은 4배수를 선발하고 3명일 경우 3배수를 선발한다. 4명은 9명에게, 5명 이상은 2배수의 인원에게 면접 응시 기회를 준다. 단, 영어영문학과는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는다. 고른기회전형과 사회공헌·통합전형 등 다른 학생부종합 유형의 전형들도 지원 자격의 차이가 있을 뿐 평가 방식은 동일하다.

©Gettyimagesbank



논술전형

서울시립대는 2020학년도 수시에서 논술전형으로도 142명을 선발한다. 논술 100%로 평가하는 1단계에서 4배수를 뽑아 2단계 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논술 60%, 학생부 40%를 반영한다. 학생부는 전학년 전교과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반영해 평가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문항으로만 구성된 수리형 논술고사다.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항의 경우는 계산과정이 틀리더라도 핵심 아이디어가 잘 서술되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인문계열 논술에서는 3개 문항으로 다양한 논술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184명을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만으로 평가하며 전학년 모든 교과목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은 70% 반영하고 그 외 과목을 30% 반영한다. 자연계열 반영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70%, 그 외 과목 30%다. 학생부교과전형에는 다른 수시 전형들과 달리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사회/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여야 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합 8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전공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실기전형은 총 3단계에 걸쳐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로 평가하고 이후 실기고사와 면접을 치른다. 1단계에서 공업디자인 전공 25배수, 시각디자인 전공 10배수를 뽑는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교과 50%와 실기고사 점수 50%를 반영해 공업디자인 5배수, 시각디자인 2배수를 선발한다. 실기고사로는 기초디자인을 평가한다. 이후 3단계에서 학생부교과 35%, 실기고사 35%, 면접 30%를 반영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에서는 실기고사 결과물을 토대로 지원자의 표현의도 등을 물어 답변을 듣고 평가한다. 학생부교과 실기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기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

수시모집 실기전형으로는 음악학과만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10%와 실기고사 90%를 반영해 평가한다. 성악 전공은 이태리곡과 독일곡, 피아노 전공은 지정곡과 자유곡으로 실기고사를 치른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수시모집 중에는 정원 외로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특별전형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진행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공통적으로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해 평가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사회/과학(상위 1과목) 중 3개 이상이 각 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상위 1과목) 중 3개 이상이 각 3등급 이내여야 한다. 단,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탐구영역에서 직업 과목을 포함해 상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는 모두 응시해야 한다.

수시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인원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서류 100% / 2~4배수 선발 2단계: 서류 50% + 면접 50%	727
	고른기회전형		
	사회공헌·통합전형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100%	184
	정원 외 특별전형		102
	실기전형(산업디자인학과)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 실기 50% 3단계: 서류 35% + 실기 35% + 면접 30%	18
논술	논술전형	1단계: 논술 100% 2단계: 논술 60% + 서류 40%	142
실기	실기전형(음악학과)	서류 10% 실기 90%	4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0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 수험생의 안정적인 입학 준비를 위해 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초 유지
-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및 사회공헌·통합전형 포함) 교사추천서 폐지
- 논술전형 모집인원 축소(151명 → 142명)
- 융합전공학부 정시모집 신설(정시모집 일반전형 나군에서 선발)

한눈에 보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

구분	2020학년도			비고	
	전형유형	전형방법	모집인원		
수시	논술(논술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4배수): 논술 100% • 2단계: 논술 60% + 학생부 40%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142명	인원 감소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184명	인원 감소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4배수): 서류평가 100% • 2단계: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556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4배수): 서류평가 100% • 2단계: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139명	교사추천서 폐지	
	학생부종합(사회공헌·통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4배수): 서류평가 100% • 2단계: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32명		
	학생부교과(실기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디자인학과 • 1단계(10~25배수): 학생부교과 100% • 2단계(2~5배수): 학생부교과 50%, 실기고사 50% • 3단계: 학생부교과 35%, 실기고사 35%, 면접고사 30% 	18명		
	실기(실기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학과(성악, 피아노) • 학생부교과 10%, 실기고사 90% 	4명		
	학생부교과(정원 외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교과 100% - 농어촌학생(34명) - 특성화고졸업자(25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3명) - 장애인 등 대상자(10명) ※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102명		
	소계			1,075명	
	정시	• 인문자연계열 - 수능 100%		533명	인원 증가
• 예체능계열 - 각 학과별로 영역별 전형요소 반영		102명			
소계		635명			
정원내 합계			1,710		
총계			1,812		

정시모집

모집단위 대부분 수능 100% 반영

탐구영역은 학교 자체 변환점수로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시립대는 가군 589명, 나군 46명으로 총 63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에 비해 22명이 늘어났다.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시모집은 크게 수능 위주의 일반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뉜다. 실기고사 평가가 필요한 전공이 아니라면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100% 반영한다. 모든 모집단위에서 한국사를 등급별 점수로 반영하며 5등급부터 총점에서 2점씩 감점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가/나형) 30%, 영어 25%, 사회/과학 15% 비율로 성적을 반영해 평가한다. 단 경제학부와 세무학과, 경영학부의 경우는 수학(가/나형)을 35%, 사회/과학을 10% 비율로 반영해 차이가 있다.

반영하는 점수는 과목별로 다르다.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은 백분위점수를 활용한 학교 자체 변환점수를 적용한다. 영어는 등급 점수를 반영하는데 1등급은 만점을 부여하며 2등급부터 4점씩 감점한다. 인문계열에서는 탐구영역 반영 시 제2외국어 또는 한문영역을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서울시립대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은 대학수학능력평가 성적을 국어 20%, 수학 가형 30%, 영어 20%, 과학 30% 비율로 반영한다.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영어영역은 등급 점수를 반영한다. 단 영어영역 등급 점수에서 2등급부터 2점씩 감점되는 것이 인문계열과 다른 점이다. 탐구영역은 백분위점수를 활용한 학교 자체 변환점수를 적용한다.

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과학과

산업디자인학과와 스포츠과학과는 실기보다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일반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전형방법은 인문·자연계열과 다르다. 산업디자인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 100%를 반영해 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수능 60%와 학생부 교과 및 출결 20%, 실기 20%를 반영해 평가한다. 실기고사에서는 별도 주제를 부여한 뒤 발상에 의한 표현을 평가한다. 스포츠과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수능 50%, 학생부 교과 및 출결 20%, 실기 30%를 반영해 선발한다. 실기고사 과목은 체전굴, 제자리 멀리뛰기, 100m 달리기 등이다.





**실기 위주
일반전형**

정시모집에서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공은 음악학과와 환경조각학과다. 대학수학능력평가와 학생부 서류평가, 실기평가를 모두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는 전 학년 국어, 영어 전 과목의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동일하게 반영한다. 교과 및 비교과 점수 반영 비율은 교과성적 90%, 비교과성적(출결) 10%다. 두 전공 모두 수능은 국어 50%, 영어 50%를 반영한다. 영어 등급별 점수 반영은 1등급에 만점을 부여하고 2등급부터 4점씩 감점하는 방식이다. 국어는 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수능 반영비율과 서류 및 실기 비율은 전공별로 차이가 있다. 음악학과는 수능 20%, 학생부 교과 및 출결 20%, 실기 60% 비율로 반영해 평가한다. 작곡전공은 화성풀이, 작곡, 피아노 테스트로 실기평가를 치른다. 성악전공은 이태리곡과 독일곡으로 평가한다. 피아노전공은 지정곡과 자유곡을, 관현악은 자유곡 1곡을 연주한다.

환경조각과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수능 30%, 학생부 교과 및 출결 20%, 실기 50%를 반영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실기교사 과목은 소조와 소묘다.

**정원 외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서울시립대는 정시모집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전형이 있다. 융합전공학부를 제외한 인문·자연계열 전공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50%, 면접구술 50%로 평가한다. 성적이 반영되지는 않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한 모집단위별 지정 영역에 응시해야만 한다.

정시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군	모집계열 및 모집단위	전형요소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모집인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영역					
				가	나			사회		과학			
가	인문계열 I	수능 100%	30%	30%		25%	등급별 점수 부여	15%		114			
	인문계열 II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부)		30%	35%		25%		10%					
	자연계열		20%	30%	-	20%		-	30%				
	예체능계열		각 학과별로 영역별 전형요소 반영						102				
나	도시행정학과	수능 100%	30%	30%		25%	등급별 점수 부여	15%		13			
	자유전공학부			30%				30%			15%		22
	융합전공학부(인문)			30%				30%			15%		
	융합전공학부(자연)			30%	30%			-	20%		-	30%	6



2020학년도 입학정원 및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계열	입학 정원	수시모집										수시 모집 합계 (정원 내)	정시모집			정시 모집 합계 (정원 내)
			정원내					정원외						기군	나군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사회 공헌 통합 전형	실기 전형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장애인 등 대상자				일반 전형	
계		1,697	142	184	556	139	32	22	34	25	33	10	1,075	589		46	635
행정학과	인문	77	-	13	30	8	1	-	1	1	1	52	25	-	-	25	
국제관계학과		41	-	6	20	5	1	-	1	1	1	32	9	-	-	9	
경제학부		86	-	8	30	9	1	-	2	1	2	48	38	-	-	38	
사회복지학과		38	5	5	13	4	1	-	1	1	1	28	10	-	-	10	
세무학과		65	8	8	24	7	1	-	1	1	1	48	17	-	-	17	
경영학부		210	20	46	70	23	1	-	1	-	1	160	50	-	-	50	
영어영문학과		36	-	2	14	2	1	-	1	-	1	19	17	-	-	17	
국어국문학과		26	3	-	8	1	1	-	1	-	1	13	14	-	-	14	
국사학과		24	-	3	8	1	1	-	1	-	1	13	11	-	-	11	
철학과		24	-	4	10	1	1	-	1	-	1	16	8	-	-	8	
중국어문화학과		24	3	4	8	1	1	-	1	-	1	17	7	-	-	7	
도시행정학과		38	-	8	12	4	1	-	1	1	1	25	-	-	13	13	
도시사회학과		35	5	-	13	4	1	-	1	1	1	23	13	-	-	13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자연	144	19	-	52	15	1	-	2	1	2	87	57	모집 인원 제한 없음 (도시 행정 학과 제외)	-	57
화학공학과			48	6	7	15	4	1	-	1	1	1	33	16	-	-	16
기계정보공학과			38	3	-	14	3	1	-	1	1	1	21	18	-	-	18
신소재공학과			38	5	6	8	3	1	-	1	1	1	23	16	-	-	16
토목공학과			38	5	6	12	3	1	-	1	1	1	27	11	-	-	11
컴퓨터공학부			58	8	9	18	5	1	-	1	1	1	41	18	-	-	18
수학과			38	10	2	12	3	1	-	1	1	1	28	10	-	-	10
통계학과	29		-	4	12	2	1	-	1	1	1	19	11	-	-	11	
물리학과	28		4	-	14	2	1	-	1	1	1	21	7	-	-	7	
생명과학과	36		4	9	12	3	1	-	1	1	1	29	8	-	-	8	
환경원예학과	29		2	5	11	2	1	-	1	1	1	21	9	-	-	9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38		5	5	16	3	1	-	1	1	1	30	8	-	-	8	
건축학부(건축학전공)	38		5	6	14	3	1	-	1	1	1	29	9	-	-	9	
도시공학과	26		-	3	12	2	1	-	1	1	1	18	9	-	-	9	
교통공학과	24		3	5	8	1	1	-	1	1	1	18	6	-	-	6	
조경학과	28		-	4	14	2	1	-	1	1	1	21	7	-	-	7	
환경공학부	75		10	-	23	7	1	-	2	1	1	41	34	-	-	34	
공간정보공학과	29		4	-	9	2	1	-	1	1	1	16	14	-	-	14	
자유전공학부	38		5	6	-	4	1	-	-	-	-	16	-	-	-	22	22
국사학-도시역사경관학전공	융 합 전 공 학 부		2	-	-	1	-	-	-	-	-	-	1	-	-	1	1
국제관계학-빅데이터분석학전공		4	-	-	3	-	-	-	-	-	-	3	-	-	2	2	
도시사회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		3	-	-	2	-	-	-	-	-	-	2	-	-	1	1	
철학-동아시아문화학전공		2	-	-	1	-	-	-	-	-	-	1	-	-	1	1	
도시공학-도시부동산기획경영학전공		2	-	-	1	-	-	-	-	-	-	1	-	-	2	2	
도시공학-국제도시개발학전공		2	-	-	1	-	-	-	-	-	-	1	-	-	1	1	
물리학-나노반도체물리학		2	-	-	1	-	-	-	-	-	-	1	-	-	1	1	
생명과학-빅데이터 분석학		2	-	-	1	-	-	-	-	-	-	1	-	-	1	1	
조경-환경생태도시학		2	-	-	1	-	-	-	-	-	-	1	-	-	1	1	
음악학과		예 체 능	29	-	-	-	-	-	4	-	-	-	4	25	-	-	25
산업디자인학과(시각)	14		-	-	-	-	-	14	-	-	-	14	-	-	-		
산업디자인학과(공업)	15		-	-	-	-	-	4	-	-	-	4	11	-	-	11	
환경조각학과	36		-	-	-	-	-	-	-	-	-	-	36	-	-	36	
스포츠과학과	38		-	-	8	-	-	-	-	-	-	8	30	-	-	30	

※ 2020학년도 정원내 모집인원에는 2018학년도 이월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 2020학년도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이 궁금해? 우리가 알려줄게! 서울시립대 입학 홍보대사 '스카우터'



스카우터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입학 정보를 알려주는 입학 홍보대사다.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공, 교내 프로그램, 동아리 등 서울시립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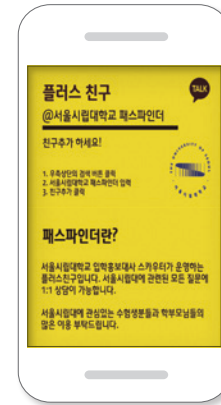
수시·정시 대학입학박람회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수험생들을 만나는 것도 스카우터의 역할 중 하나다. 고등학교를 방문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현재 서울시립대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고민에 답하고 입학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스카우터 상담의 특별한 장점이다. 학생들이 서울시립대 캠퍼스를 방문해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학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gettyimagesbank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친구추가!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는 스카우터의 대표적인 수험생 상담 활동이다. 학생들의 생활에 맞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한다. 1:1 상담이기 때문에 질문에 딱 맞는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입학전형에 대한 설명은 물론 학과 및 커리큘럼 소개, 진로 탐색 방법, 학교 행사 일정 등 서울시립대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대부분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또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듯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입학과 관련된 개인적인 고민까지 나눌 수 있다. 패스파인더는 수험생과 학부모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패스파인더'를 입력해 검색하고 친구로 추가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1:1 대화로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소식' 메뉴에서 다양한 입학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원하는 전공 선배와 만나보세요 | COME:PATH

지난해 스카우터 10기들이 야심 차게 시작한 'COME:PATH'는 학과별 멘토들과 그 학과에 관심 있는 예비 수험생들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링을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재학생이 멘토가 되고,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멘티가 된다. 참가 신청한 고등학생들이 서울시립대를 방문해 3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입학전형 및 학과 안내와 수시 멘토링, 전공별 멘토링, Q&A 등으로 구성된다. 2018학년도에 스카우터는 COME:PATH 멘토링을 총 11회 진행하며 재학생들과 예비 수험생들을 연결했다.



서울시립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공식 SNS 채널

서울시립대 소식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채널은 공식 SNS다. 스카우터는 SNS를 통해 서울시립대 입학 정보를 알리고 있다. 1:1 채팅이 가능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패스파인더를 비롯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식 계정을 운영하며 정보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 블로그 blog.naver.com/uosadmission
- 페이스북 www.facebook.com/uosadmission
- 인스타그램 @univ.of.seoul.scouter



“ 스카우터 한마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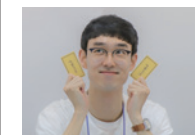
“수험생일 때 가장 원했던 학교가 서울시립대였어요. 오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오니, 저처럼 서울시립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스카우터에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입학박람회와 멘토링, 온라인 상담 등으로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김영민(환경공학과 17학번)



“스카우터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 대해 저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을 하면서 저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는 걸 느낍니다. 또 많은 이들과 앞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발표에 자신이 없던 제가 강단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훈(국사학·도시역사경관학과 17학번)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의 장점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답변을 하면서 서울시립대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에 관심을 보이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입학박람회에서 우리 대학 상담을 원하셨는데 사람이 많아 대기 번호를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패스파인더 명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이후 패스파인더 친구가 부쩍 늘었죠. 그렇게 관심을 받는 학교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박혜연(경제학과 16학번)



“COME:PATH 멘토링으로 서울시립대에 꼭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더 큰 애착을 느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 때에는 제 수험생활 경험을 발표했는데 한 학생이 제게 직접 다가와 '오늘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해준 적도 있어요. 그 학생은 몇 개월 후 저희 학교 후배가 되어 패스파인더로 합격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정말 뿌듯한 기억이죠. 수험생들에게는 원하는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과 잘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볼 권하고 싶어요. 자신이 간절히 만큼 더 많이 알아보면 좋겠어요. 서울시립대를 지원하고 싶다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스카우터가 돕겠습니다.”
류민열(통계학과 14학번, 스카우터 10기장)



한눈에 보는 UOS 연간 프로그램

서울시립대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진학에 대한 안내는 물론 캠퍼스 라이프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학처의 연간 캘린더를 통해 꼭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미리 체크해두자.



※상기 일정은 2018년 기준이며 2019년에는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admission.uos.ac.kr>

서울시립대생의 친구 시냥이를 소개합니다

또치, 우왕좌왕, 치즈밥, 다크시니. 만화 속 캐릭터냐고? 노노~! 시대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낭님들의 이름이다. 갈 곳 없는 길고양이에서 서울시립대 명물로 묘생역전에 성공한 시냥이, 우리의 다정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하악 슈르타 슈르!
영혼이 타들어가는
맛이다냥!!



와 서럽!
그냥 확 딱 테로
가버려?!



진짜냐?
진짜 이 좁은
웍중에서 둘이
살라는 거냐?

덤앤더머 허당 콤비의 계보를 잇는 꼬꼬마 애교꾼 우왕이와 허허실실 좌왕이. 챙겨주는 집사들이 많다 보니 이젠 소화행보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까탈스러운 불쌍배가 되고 있다네.



안전이 최고시당!
학교는 이 몸이 다크하고
시크하게 지켜준다옹

애는 다크시니. 고당시를 지키는 다크 히어로. 배트맨만큼이나 능률한 모습이지? 이름만큼 포스 넘치는 자태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어. 쌀쌀맞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빙구미도 뽕뽕 넘치는 옷기는 녀석.

어때? 땡글땡글한 눈망울이 정말 귀엽지 않아? 요즘 시냥이들 중에서 제일 사랑받고 있는 치즈밥. 귀여운 외모에 불임성 좋은 성격까지 갖춘 핵인싸냥이야. 추르신에게 영혼을 저당잡힌 몸이시지.

후후 내가 이따거에
혹할중 알았냥
어렵혔... 오우야
이거 완전 내 스타!



털실만 보면
끼우러치는 치즈밥. 확
그냥 막 그냥 명바닥에
구르며 어쩔 줄
모르다니까 글썩.



다 모였냥?
어젯밤 기숙사 현관에
스프레이 같기고
도망간 냥아씨 누구냐?

(프꿍..)
나, 난 아냥..!

햇살이 제법 포근했던 겨울의 한낮, 오랜만에 반상회를 겸해 한자리에 모두 모인 시냥이들. 이렇게 시냥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흔치 않은 풍경이야.

누구양~
남자화장실에
묵 안 내리고 간 닝겐
당장 나와~



가끔 건공이가 기숙사 안으로 들어와서
순찰을 돌기도 해. 이럴 땐 꼭 참견하기
좋아하는 B사감 같은 느낌이랄까?



오늘도 있는 힘껏
귀여운 포즈를.
자, 어서
슈르를 달라구!

불임성 원통 시냥이로 유명한 인문이. 사람만 보면
부비부비 살랑살랑. 이렇게 살갑게 구니 모든 학우들이
예방접종에 사료에 간식까지 챙겨주는 거겠지?

어으 쫄다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한테 건성공학관이 최고양



시냥이들 중 No.1 우두머리랄까,
인기도 쟁 존재감도 쟁인 건공이. 늘
유유자적 여유만만 토실토실이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